

東洋思想의 發生과 우리나라의 白頭山

안창범*

目次

- I. 序論
- II. 佛敎의 發生과 우리나라의 白頭山
- III. 儒敎의 發生과 우리나라의 白頭山
- IV. 道敎의 發生과 우리나라의 白頭山
- V. 要約과 結論

I. 序論

지금까지 우리민족은 고유철학도 고유종교도 없는 하찮은 민족같이 여겨져 왔다. 그러나 상고사를 깊이 연구해 보면, 지금까지 신화적인 존재로 취급되고 있는 桓雄天皇에 의하여 지금부터 5896년(서기 1999년 현재) 전 음력 10월 3일, 우리나라의 백두산 神市에서 天一·地一·人一 三神一體의 天道를 발생원리로 道·佛·儒 三敎一體의 神仙道가 설해졌었다.¹⁾

그런데 흔히 釋迦의 佛敎와 孔孟의 儒敎 그리고 老莊의 道敎를 전통적 동양사상이라 일컫고, 석가의 불교는 雪山, 공맹의 유교는 崑崙山, 노장의 도교는 三神山과 불가분의 연관성을 지닌다. 다시 말하면, 불교의 교조 석가세존은 설산 남녘 기슭 迦毘羅城에서 태어났다 하고, 설산 閼浮洲(염부주)에서 6년 고행 끝에 成道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지나의 유교인들은 곤륜산을 유교문화의 발상지, 지나인의 정신적 고향이라 믿는다. 그리고 지나의 도교인들은 삼신산을 지나인의 이상향, 地上仙境이라 동경한다. 곧 설산과 곤륜산 그리고 삼신산은 불교·유교·도교의 발상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설산·곤륜산·삼신산은 모두 동일한 산으로써 백두산의 다른 표현이라 추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들 산이 어디에 있는지의

* 윤리교육과 교수

1) 안창범 지음, 『잃어버린 배달사상과 동양사상의 기원』, 국학자료원, 1996. 또는 안창범 지음, 개정3판, 『우리민족의 고유사상』,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 참조.

문제에 대해서는 신비 속에 가려 있어 오리무중이다. 막연히 설산은 인도 북부의 히말라야 산맥의 어디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곤륜산은 지나대륙 서쪽 곤륜산맥의 어디에 있는 것으로, 또 삼신산은 海中의 어디에 있는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아직까지 이들 산의 소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시원히 밝혀진 바 없다.

이 글에서는 지리적 조건을 근거로 불교인들의 聖山으로 생각하는 雪山과 유교인들의 정신적 고향인 崑崙山 그리고 도교인들의 이상향인 三神山이 모두 동일한 산으로서 우리나라의 白頭山임을 증명한다. 다시 말하면, 불교·유교·도교 등 전통적 동양사상이 우리민족에 의해 최초로 성립됐음을 지리적 조건을 근거로 증명한다. 이에 대해 일반인들도 어리둥절해 하겠지만 특히 불교인들과 유교인들은 더욱 어리둥절해 하거나 무조건 부정하려 할 것이다. 신앙을 떠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한 자연인의 입장에서 냉정히 이 글을 읽고 비판해 주기 바란다.

II. 佛敎의 發生과 우리나라의 白頭山

1. 佛敎의 發祥地인 雪山은 어떤 山인가?

구체적으로 불교의 발상지인 설산은 어떤 산인가의 문제이다.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 제5에 의하면, “설산 남녘 기슭 彌伽河 곁에 迦毘羅(劫毘羅) 선인이 사는 곳이니 가비라성과 멀지 않다” 하였고 가비라성이 설산과 가까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釋迦氏譜』에 의하면 가비라는 염부주 중의 한 지역으로 지구의 가장 중심이라 하였다.²⁾ 곧, 설산은 지구(五大洋·六大洲)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長阿含經』 세기경에 의하면 雪山의 정상에 큰 못인 阿耨達池(아녹달지)가 있고, 거기에 용왕이 살며(龍王住處), 사망에서 四大河가 흐르는데, 동쪽으로는 恒河, 남쪽으로는 新頭河, 서쪽으로는 婆叉河(바차하), 북쪽으로는 斯陀河(사다하)가 흐른다고 하였다.³⁾ 또한 『釋迦方志』 中邊篇 제3을 보면, 여러 전거를 들면서 좀더

2) 『佛敎大藏經』, (第三十三冊, 律部五,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 第五), 中華民國 台北市, 佛敎出版社, 中華民國 67年, p.401; 雪山南傍彌伽河側 劫毘羅仙人住處 不遠劫毘羅城 釋迦種中生一太子 端正具足 衆相圓滿 一切衆生 見者喜悅. 여기에 기재된 劫毘羅는 劫比羅·迦毘羅·迦毘羅衛·迦夷羅·迦維라고도 쓴다.

3) 前揭書, 『佛敎大藏經』, (第七十四冊, 史傳部一, 釋迦氏譜, 三序所託方土), p.149; 閻浮…域……迦毗羅國最是地之中也.

자세히 밝혀주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閻浮洲(염부주)는 須彌山(수미산) 남쪽 海中에 있다. 三邊이 비등하며 북은 넓고 남은 좁아(北闊南狹) 人面像이다. 閻浮洲는 振旦이니 神州라 한다. 염부주 중에 한개의 큰 못이 있으니 阿那陀答多라 하고, 唐나라에서는 無熱惱池라 한다. 소위 불경에서 말하는 阿耨達池니 못의 둘레는 八百里이며, 四岸이 보물장식이다. 정남에는 대단한 평지와 지옥이 있다. 金剛座 동쪽은 경사를 이루는데 五千里에 이른다. 또 못의 정남은 이 洲의 尖處이며, 그 북쪽에는 대단한 폭포인 謎羅川(미라천)이 있어 북으로 나아간다. 아녹달산(설산)을 곤륜산이라고도 한다. 설산(곤륜산)은 三層인데 하수의 원천으로서 水之靈府이다. 사방으로 四大河가 흐르는데 모두 오른쪽으로 돌아 흐른다.⁴⁾

이상의 기록 즉 『長阿含經』의 기록에 의하면 설산의 정상에 아녹달지가 있고, 거기에서 사방으로 四大河가 흐르고, 『釋迦方志』의 기록에 의하면 염부주에도 아녹달지가 있고 거기에서 사방으로 四大河가 흐른다. 그러므로 염부주와 설산은 같은 지역이며, 염부주는 설산 정상의 아녹달지 주변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면 석가세존이 고행성도한 설산과 염부주는 어떠한 특수성 곧 성립요건을 지니고 있는가? 우선 염부주의 성립요건을 몇 가지 정리한다.

- ① 염부주는 수미산 남쪽 海中에 있다.
- ② 염부주는 진단이니 신주라 한다.
- ③ 염부주 중에 큰 못인 아녹달지가 있고, 四方으로 四大河가 흐르는데 모두 오른쪽으로 돌아 흐른다.
- ④ 염부주는 三邊이 비등하며 북은 넓고 남은 좁아 人面像이다.

4) 국역『長阿含經』, (世紀經 閻浮提洲品), 東國大學校 附設 東國譯經院, 1985, p.420.

5) 前掲書, 『佛教大藏經』, (第七十四冊, 史傳部一, 釋迦方志, 中邊篇 第三), pp.174-175: 此一洲在蘇迷山 南之海中也……衣論說三邊等量……北闊而南狹 人面像之……(二言里者)……成光 子云 中天竺國 東至振旦國 五萬八千里(註: 振旦 卽 神州之號也)……(四言水者)此洲中心 有一大池 名阿那陀答多 唐言無熱惱池也 卽 經所謂阿耨達池……池周八百里 四岸寶飾 正南當於平地 地獄所居 故金剛座東僻 至五千里 又池正南當於尖處 其北當謎羅川卽北……扶南傳云 阿耨達山卽崑崙山……十州記云……東海中山名方丈 亦名崑崙……具彼圖經 若崑崙遠山則香山雪山之中也……郭璞圖讀云 崑崙三層 號曰天柱 實惟 河源水之靈府……佛經云此無熱池 東有銀牛口 出殞伽河 卽古所謂恒河也 右繞池匝 流東南海 南有金象口 出信度河 卽古辛頭河也 右繞池匝 流入西南海 西有琉璃馬口 出縛鄴河 卽古博叉河 如上繞池 入西北海 北有頗胝師子口 出徙多河 卽古私多河也 如上繞池 入東北海.

이상은 염부주의 특수성임과 동시에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위의 요건에 부합일치되면 염부주라 할 수 있고, 부합일치되지 않으면 염부주라 할 수 없다는 이론이 성립된다.

다음은 설산의 성립요건이다.

- ① 설산은 지구의 중심에 있다.
- ② 설산은 三層이다.
- ③ 설산의 정상에 큰 못인 아녹달지가 있고, 이를 唐에서는 무열뇌지라 하였다.
- ④ 설산은 하수의 원천으로서 水之靈府이다.
- ⑤ 아녹달지 북쪽에 대단한 폭포(謎羅川)가 있다.
- ⑥ 아녹달지의 둘레는 八百里이다.
- ⑦ 아녹달지는 용왕이 산다는 龍王住處이다.
- ⑧ 아녹달지에서 四方으로 四大河가 흐르는데, 모두 오른쪽으로 돌아 흐른다.
- ⑨ 아녹달지의 四岸이 보물장식이다.
- ⑩ 아녹달지의 정남과 동쪽에 대단한 평지가 있는데 동서로 경사를 이루고 五千里에 이른다.
- ⑪ 아녹달지의 정남 壁上은 尖處이다.

이상은 석가세존이 六年間 고행수도한 설산의 성립요건을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어느 산이든 위의 요건에 부합일치하면 그 산이 곧 설산이라 할 수 있고, 부합일치하지 않으면 설산이라 할 수 없다는 이론이 성립된다.

2. 히말라야 山脈에는 雪山이 없다

그러면 불자들이 성산으로 모시는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의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봉이거나, 아니면 그 산맥 가운데 어느 산의 특수성이 위에 제시한 설산의 성립요건에 부합일치되는지의 문제이다. 최소한 히말라야 산맥 가운데 어느 산의 정상에 하수의 원천인 큰 못이 있는지의 문제이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山上湖水는 페루와 볼리비아 국경에 있는 티티카湖와 소련의 레닌그라드 근처에 있는 라도카湖라 하여⁶⁾ 인도 히말라야 산맥의 어느 산의 정상에도 큰 못(호수)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이는 곧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에는 석가세존이 고행성도한 설산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더러 玄奘의 『大唐西域記』를 비롯하여 어느 불교 사서를 보아도 석가세존이 인도

6) 동아일보, 1989. 8. 29(화), 17면.

북부 히말라야 산맥의 어느 산에서 고행했다는 유적이나 기록을 일절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어떤 학자들의 佛敎史書를 보면 석가세존의 雪山苦行을 허무맹랑한 전설같이 흘려버리고 있다.⁸⁾ 그것은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에 불서에 기록된 그러한 설산이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히말라야 산맥에는 석가세존의 苦行成道地인 설산이 없다는 이론이 성립된다.

3. 印度의 부다가야는 雪山이 아니다

인도 북부의 히말라야 산맥에 석가세존이 고행성도한 설산이 없다면, 석가세존의 고행성도지는 어디인가? 인도 당국에서는 인도 중부의 佛陀伽耶를 석가세존의 고행성도지라 하여 거기에 여러 가지의 시설을 갖추어놓고 있다. 그러면 인도 중부의 부다가야가 석가세존의 고행성도지인가? 이제 그 부당성을 비판한다.

첫째, 부다가야는 산악이 아니라 평지이다.

석가세존의 고행성도지인 설산은 산악이다. 이는 불교신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일반상식이다. 그런데 인도 중부의 부다가야는 산악이 아니라 평지이다. 그밖에도 부다가야는 설산의 특수요건을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인도를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 것이다. 그리고 부다가야는 인도 중부에 가까운 곳으로 인도 북부의 히말라야산맥 중의 어느 산을 설산이라 할 경우 거기에서 二千餘里 이상이나 남쪽으로 떨어져 있다.

둘째, 부다가야의 네란자라강은 불서의 尼連禪河가 아니다.

석가세존은 6년 고행 마지막에 니련선하에서 목욕하고, 伽耶山의 菩提樹 밑에서 성도했다. 니련선하는 종교용어로서 강물이나 그 주변의 풍경을 나타낸 표현이다.

그 뜻으로 말하면 강바닥에 깔려 있는 모래가 보일 정도의 깨끗하고 맑은 물을 의미하며, 강변에 연이어 서 있는 병풍석은 마치 비구니가 줄지어 서서 기도하는 것 같은 仙境을 의미한다.

인도의 부다가야 가까이에 네란자라강(Neranjara江)이 흐른다. 네란자라강은 乾期에는 말라 버리고 雨期에만 흐르는 강인데, 강변은 흙과 모래로 된 얇은 언덕이다. 병풍석이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니련선하는 설산에서 동남해로 들어가는 恒河의 지류로서 동쪽 아니면 동남쪽으로 흐르는 강이라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부다가야의 근교를 흐르는 네란자라강은 인도 중부의 데칸고원을 시발로 하여 남

7) 中村元 著(金知見 譯), 『佛陀의 世界』, 김영사, 1990, p.197.

쪽에서 동북쪽으로 흐르는 강이다. 다시 말하면, 니련선하와 네란자라강은 흐르는 방향이 정반대이다. 그러므로 부다가야의 네란자라강은 불서의 니련선하라 할 수 없다.

셋째, 부다가야에 석가세존의 佛塔이 없다.

근세조선의 世祖 首陽大君의 저술인 『釋譜詳節』에 의하면 석가세존의 고행성도지에 불탑이 있어야 한다.⁸⁾ 그런데 석가세존의 고행성도지라는 부다가야에 석가세존의 불탑이 없다. 있다면 석가세존이 입멸하여 약 2백년 후에 아쇼카왕이 세웠다는 돌기둥과 정사와 그후에 만들어졌거나 다른 데서 옮겨온 승려들의 浮屠만이 있을 뿐이다.

넷째, 부다가야는 조작되고 있다.

부다가야는 가야에 부다를 붙인 명칭으로써 가야보다 후에 조작된 명칭이라 할 수 있다. 즉 가야를 힌두교의 성지로 만들면서 어쩔 수 없이 붙여진 명칭인 것이다. 그런데 부다가야의 불탑들은 다른 데서 옮겨온 것인가 하면, 정사의 작은 원판 자체가 근대의 위작이라는 학자(B.M.Barua)도 있으니⁹⁾, 부다가야의 유물과 유적들은 인도인의 긍지를 높이고 인도를 찾아오는 외국불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하여 후대에 와서 조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 근거하여 인도의 부다가야는 석가세존의 고행성도지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도의 부다가야는 석가세존이 고행성도한 설산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다가야를 석가세존의 고행성도지라고 믿는 우리나라의 승려들이나 불교학자들의 심리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부다가야에 막대한 금액을 드리면서 절까지 지으니, 신앙이란 그렇게도 맹목적인가? 맹목적 신앙으로 어떻게 見性成佛할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4. 雪山은 우리 나라의 白頭山이다

인도 북부의 히말라야 산맥 가운데도 석가세존의 고행성도지인 설산이 없고, 인

8) 김영배, 『釋譜詳節 第二十三·四 註解』, 一潮閣, 1982, p.124.:대군의 저술인 『석보상절』에 따르면 석가세존이 입멸하여 화장하자, 여덟섬 너말(8만 4천개)의 사리(舍利)가 나왔는데 이를 제천(諸天)과 용왕(龍王)에게 나누어주니 모셔다가 칠보탑(七寶塔)을 세웠다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명기하기를 “인간 세상에 큰 탑이 넷이니, 가비라국 부처가 나신 곳에 하나와 마갈제국 성도하신 곳에 하나와 바라날국 녹야원 전법하신 곳에 하나와 구시국 열반하신 곳에 하나가 있더라”고 하였다. 즉 석가세존이 입멸하자 탄생지인 가비라에 석가세존의 사리불탑을 세웠다는 것이다.

9) 中村元, 前掲書, p.205.

도 중부의 부다가야도 설산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백두산도 이를 설산이라고 하고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하면, 히머리산·히마리산이며, 이를 영어로 표기하여 발음하면 히마리아(Himalya)산이 되고, 전음하면 히말라야(Himalaya)산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백두산이 석가세존의 고행성도지가 아니냐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백두산에 대한 기록을 소개한다.

우선 백두산의 위치가 세계의 어디에 속하는가의 문제이다. 세계지도를 펴고 보면, 일본은 左靑龍, 중국은 右白虎에 해당되고, 남북 아메리카 대륙은 外靑龍,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대륙은 外白虎에 해당되며, 시베리아대륙은 玄武에, 오세아니아주는 朱雀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바로 지구의 명당인 세계의 중심이라고 민족종교 측에서 주장한다. 그런데 세계지리학회가 위성사진을 근거로 백두산을 지구의 중심이라 하고 있다.¹⁰⁾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新增東國輿地勝覽』 회령도호부에 의하면 기이하게도 설산과 같이 백두산도 三層으로 되어있는데, 그 정상에 큰 못인 天池가 있고, 못의 둘레는 八十里라 하였다.¹¹⁾ 백두산 천지에서 발원하여 두만·압록·송화·소하 등 四大河가 사방으로 흐르는데, 모두 오른쪽으로 돌아 흐른다. 천지의 북쪽 송화강의 출구는 達門인데, 거기에서도 아늑달지에서와 같이 높이 68m의 큰 폭포가 북쪽으로 흐른다. 천지라는 뜻은 천연수 즉 생수를 의미하는데, 『列子』에는 천지를 歸虛라 하면서 물은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고 하였다.¹²⁾ 穆克登의 기록에는 백두산 정상에 못이 있는데 이를 龍王潭 또는 天池라 하고 물은 북소리를 내듯 솟아난다고 하였다.¹³⁾ 동아일보의 최근 보도를 보아도 천지에서 생수가 솟아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¹⁴⁾ 이래서 백두산도 하수의 원천으로서 水之靈府인 것이다. 또한 천지의 물은 차고 맑으며 바다와 같이 넓으므로 백두산 정상에 앉아 천지를 내려다보면 모든 고뇌와 번민, 오뇌와 신음이 사그러지는 듯 하니 최남선은 『白頭山觀參記』에서 천지를 無熱惱池라 하였다.¹⁵⁾ 또한 천지의 四圍도 이른바 火口壁이라는 것으로 어떤 것은 자색이고, 어떤 것은 흑색이며, 간색도 있고 잡색도 있어서 그 색채가 다양하다. 이래서 천지의 사위는 보물장식 같기도 하다.

10) 세계일보, 1992, 2, 22, 2면. 說往說來, 白頭山.

11) 民族文化推進會 編, 『國譯(新增東國輿地勝覽)』, (6, 회령도호부), 民族文化文庫刊行會, 1982, p.300.

12) 『列子』, (湯問篇), 金學主 張基謹 譯, 『列子 管子』, 新華社, 1983, p.186.

13) 金鵬南 編, 『白頭山은 우리의 故鄉』, 平和社, 1990, p.258에서 재인용.

14) 東亞日報, 1989, 8, 29(水) 및 1989, 9, 12(화), 17면 참조.

15) 崔南善, 『白頭山觀參記』.

천지의 모형을 보면 3변이 비등한데, 북은 넓고 남은 좁아서 인면상이다. 천지의 남쪽 壁上에 銳角直岩이 높이 솟아있고, 그 남쪽과 동쪽에 蓋馬高原이 펼쳐있는데 면적이 약 4만km²의 대평원이고¹⁶⁾ 동쪽에서 서쪽으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이상의 기록을 근거로 염부주와 천지, 설산과 백두산을 비교한다. 먼저 염부주에 대한 기록부터 인출하여 백두산의 천지와 비교한다.

1) 염부주는 바다(海中)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고조선을 바다라 한다. 바다는 태평양이나 대서양 같은 실제의 잔물바다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종교의 발상지, 종교의 요람, 仙人住處, 須彌世界를 의미하고, 그곳은 과거의 우리나라 고조선을 지칭하였다.¹⁷⁾

2) 염부주를 진단 또는 신주라 하는데, 백두산의 천지 주변을 진단·신주·신시라 한다.

3) 염부주에 아늑달지라는 큰 못이 있어 거기에서 사방으로 四大河가 흐른다. 그런데 백두산 정상에도 天池라는 큰 못이 있고, 거기에서 사방으로 四大河가 흐른다.

4) 염부주는 三邊이 비등하며 북은 넓고 남은 좁아 인면상이다. 그런데 백두산의 천지 모형도 三邊이 비등하며 북은 넓고 남은 좁아 인면상이다.

이상과 같이 백두산 천지의 특수요건이 염부주의 성립요건에 부합일치된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염부주가 인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백두산 천지 곧 신시임을 의미한다. 또한 『釋迦方志』를 보면 “염부주를 크게 3분하면 2분은 북쪽인데, 땅은 넓고 사람은 드물며, 흉노가 사는데, 道에 힘쓰지 않는다. 1분은 남쪽인데 3변이 바다에 닿았고, 사람은 많으나 마음이 맑고 성인의 교화를 잘 받은 大聖都”라고 하였다.¹⁸⁾ 이를 보면 염부주는 한편 만주·러시아의 연해주·한반도를 포괄하는 상고시대의 고조선 강역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따라서 염부주는 좁게는 천지 주변 곧 신시를 의미하며, 넓게는 상고시대의 고조선 강역 전체를 의미한다.

다음은 설산과 백두산의 비교이다.

1) 설산을 히말라야산이라 한다. 그런데 백두산도 우리민족의 순수한 고유어로 표현하면, 히말라야산이며, 전음되면 히말라야산이 되고, 한편 설산이라 한다.

2) 설산은 지구의 중심에 있다고 했다. 그런데 백두산도 지구의 중심에 있다고

16) 李弘植 編, 『國史大事典』, 大榮出版社, 1977, 蓋馬臺地 참조.

17) 안창범, 『잃어버린 배달사상과 동양사상의 기원』, 국학자료원, 1996, pp. 274.

18) 前掲書, 『佛敎大藏經』, (釋迦方志), p.174: 夫此一洲(閻浮洲) 大分三量 二分以北 土曠人希 所居 無任道務 一分以南盡于三海, 人多精爽 堪受聖化 故約道勝大聖都焉.

세계지리학회에서 발표했다.

3) 설산이 三層인데 백두산도 三層이다.

4) 설산의 정상에 아녹달지라는 큰 못이 있고, 唐나라에서는 그 못을 무열뇌지라 하였다. 그런데 백두산의 정상에도 천지라는 큰 못이 있고, 그 못을 최남선은 무열뇌지라 하였다.

5) 아녹달지는 3변이 비등하며 북은 넓고 남은 좁아 인면상인데, 백두산의 천지모형도 3변이 비등하며 북은 넓고 남은 좁아 인면상이다.

6) 아녹달지에서 사방으로 四大河가 흐르고, 그 하수는 오른쪽으로 돌아 흐르는데, 천지에서도 사방으로 四大河가 흐르고 그 하수 역시 오른쪽으로 돌아 흐른다.

7) 아녹달지 북쪽에 큰 폭포인 謎羅川이 흐르는데, 천지의 북쪽에서도 천지폭포가 미라천을 이룬다.

8) 설산은 하수의 원천으로서 수지영부라 하는데, 백두산도 하수의 원천으로서 수지영부이다.

9) 아녹달지 정남벽상에 첨차가 있고 그 밑은 지옥인데, 천지의 정남벽상에도 예각직암이 높이 솟아있고, 그 밑은 사람이 떨어지면 저승가는 낭떠러지이다.

10) 설산 남쪽과 동쪽에 5천리에 이르는 대단한 평지가 있어 동서로 경사를 이루고 있는데, 백두산 남쪽과 동쪽에도 약 4만km²의 대평지인 개마고원이 있고, 동서로 경사를 이루고 있다.

11) 아녹달지의 못 둘레가 800리라 하였는데, 천지의 못 둘레는 80리라 한다. 단위는 과거와 현재, 인도와 중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다르므로 [8]이라는 숫자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12) 아녹달지의 4안이 보물장식 같다는데, 천지의 4위도 형형색색하여 보물장식 같다.

13) 아녹달지에 용왕이 산다는데(龍王住處), 백두산 천지를 龍王潭 또는 龍潭이라 한다. 이상을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설산과 백두산의 비교표

설 산	A	아녹달지	인면상	미 라 천	정남첨차	4안보식	龍王住處
	B	지구중심	4 대하	수지영부	동.남평원	3층	池周8백리
백두산	a	천 지	인면상	천지폭포	정남직암	4위보식	龍王潭
	b	지구중심	4 대하	하수원천	동.남평원	3층	池周8십리

“A와 a, B와 b를 비교하시요”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백두산의 특수요건이 설산의 성립요건에 부합일치되고, 인도에 그러한 설산이 없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이 연역할 수 있다.

- ① 불사의 설산은 우리나라의 백두산이다.
- ② 석가세존이 설산에서 고행성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곧 우리나라의 백두산에서 고행성도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불교의 발상지는 우리나라의 백두산이며, 인도불교는 우리나라 신선도의 지류라는 이론이 성립된다.

Ⅲ. 儒敎의 發生과 우리 나라의 白頭山

1. 儒敎의 發祥地인 崑崙山은 어떤 山인가?

지나인들은 곤륜산을 지나문화(유교)의 발상지, 지나인의 정신적 고향, 지상선경으로 믿는다. 그러면서도 곤륜산이 어디에 있는지 신비속에 가려져 있다. 마치 불교에서 설산이 지금까지 신비 속에 가려 있었듯이 곤륜산도 지금까지 신비 속에 가려져 있는 것이다. 그러한 산을 지금부터 가려내 보기로 한다. 우선 곤륜산에 대한 기록들을 소개한다. 『학원세계대백과사전』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崑崙山 : 지나 고대의 전설에 나오는 聖山, 昆侖山·昆侖虛라고도 한다. 곤륜이라는 명칭은 혼돈과 관계가 깊으며, 원초적 카오스(혼돈)를 의미한다. 곤륜산의 위치는 지나인의 지리지식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 서쪽으로 옮겨졌는데, 魏晉南北朝 시대에는 甘肅省 酒泉 남방에 있는 산을 곤륜산이라 믿었다. 『山海經』·『穆天子傳』 등에 기록이 보이며, 초기에는 천상계에 사는 천제의 地上宮殿이 세워진 곳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후에 신선사상의 영향을 받아 고대 지나인의 이상세계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곤륜산은 우주의 중심에 위치하여 산 정상에 북극성을 향해 있으며,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三層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산의 정상에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나무를 비롯한 온갖 약초가 돌아나 예로부터 不死의 名藥을 구하기 위한 인간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았으나, 산의 주위를 흐르는 강물의 방해로 아무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한다. 後漢 시대 이후에는 女神인 西王母가 여러 선녀들의 호위를 받으며 생활하는 지상낙원으로 알려졌는데 『목천자전』에는 西周의 穆王이 이 산을 방문하여 서왕모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¹⁹⁾

19) 學園出版公社 事典編纂局, 『學園世界大百科事典』, 學園出版公社, 1994, 곤륜산 참조.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崑崙山 : 지나의 전설에 등장하는 산, 昆侖이라고도 쓴다. 멀리 서방에 있어 黃河가 이 산에서 발원한다고 믿고 있었다. 하늘에 닿을 만큼 높고 寶玉이 나는 명산으로 전하여졌으나, 戰國時代 이후 신선설이 유행함에 따라 신선경으로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되어 산중에 不死의 물이 흐르고 仙女인 西王母가 살고 있다느니 하는 신화들이 생겨났다. 지나의 곤륜산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²⁰⁾

이희승 『국어대사전』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崑崙山 : 지나의 전설에 나오는 산, 처음에는 하늘에 이르는 높은 산 또는 아름다운 玉이 나는 산으로 알려졌으나 전국시대 말기부터는 서왕모가 살며, 不死의 물이 흐르는 신선경이라 믿어졌음.

瑤池 : 지나 곤륜산에 있는 못, 仙人이 살고 있다함. 周穆王이 서왕모를 만났다는 이야기로 유명함.²¹⁾

『釋迦方志』는 여러 기록을 인용하여 곤륜산에 대하여 자세히 밝혀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곤륜산이 비록 신비스러운 산이라 하더라도 三層으로서 설산 중에 있고, 그 정상에 하수의 원천인 아녹달지가 있으며, 못의 북쪽에 큰 폭포가 있고, 사방으로 四大河가 흐른다. 못의 三面이 비등한데 북은 넓고 남은 좁아 人面像이다.²²⁾

이상의 기록에 근거하여 곤륜산의 성립요건을 인출한다.

- 1) 곤륜산의 정상에 아름다운 못(瑤池)이 있다.
- 2) 못의 3면이 비등한데 북은 넓고 남은 좁아 인면상이다.
- 3) 곤륜산은 하수의 원천으로서 못의 북쪽에 큰 폭포가 있고, 4방으로 四大河가 흐른다.
- 4) 곤륜산은 三層으로 되어있다.
- 5) 곤륜산은 신선이 사는 곳이다.
- 6) 곤륜산은 불사약이 나는 곳이다.

20) 東亞出版社 百科事典部, 『東亞原色世界大百科事典』, 東亞出版社, 1992, 崑崙山(崑崙山).

21)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79, 곤륜산(崑崙山) 및 요지(瑤池) 참조.

22) 前掲書, 『佛敎大藏經』, 第七十四册, 史傳部一, 釋迦方志, 中邊篇 第三, p.175.

- 7) 곤륜산은 아름다운 옥(玉)이 나는 곳이다.
- 8) 곤륜산에 西王母에 대한 전설이 있다.
- 9) 곤륜산은 지구의 중심이다.

곤륜산에 대한 요건이 이상 외에도 많으나 대체로 생략하고 위에 제시한 요건에 한정해서 곤륜산이 어디에 있는 어떤 산인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2. 崑崙山은 支那大陸에 없다

우선 지나대륙의 서쪽에 곤륜산맥이 있는데 거기에 곤륜산이 있느냐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위에 제시한 요건을 갖춘 그러한 곤륜산이 곤륜산맥에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 지구상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산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그 산을 같은 산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곤륜산맥의 어느 산의 정상에도 하수의 원천이며 아름다운 못이 있다는 기록을 본바 없고, 동아일보의 보도에 의해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산상호수는 페루와 볼리비아 국경에 있는 티티카호(湖)와 소련의 레닌그라드 근처에 있는 라도카호(湖)라²³⁾ 하여 곤륜산맥 중 어느 산의 정상에도 큰 못(호수)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곤륜산맥에 곤륜산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함경도에 함경산맥은 있으나 거기에 함경산이 없는 것과 같은 격이며, 인도 북부에 히말라야 산맥은 있으나 거기에 히말라야산이 없는 것과 같은 격이다. 동아출판사의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에도 곤륜산은 지나의 곤륜산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나 대륙에는 분명히 곤륜산이 없는 것이다.

3. 崑崙山은 우리 나라의 白頭山이다

그러면 곤륜산은 우리나라의 백두산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게 된다. 왜냐하면, 『中國古今地名大辭典』에 우리나라의 백두산(장백산)을 곤륜산이라 했는가 하면, 설산을 곤륜산이라 하기도 하였고,²⁴⁾ 설산이 백두산이라는 사실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백두산의 특수요건을 곤륜산의 성립요건에 대입시켜 보기로 한다.

- 1) 곤륜산의 정상에 아름다운 못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백두산의 정상에도

23) 동아일보, 1989. 8. 29(화), 17면.

24) 『中國古今地名大辭典』 中國大灣 商務印書館, 中華民國二十年五月初版, 崑崙山:朝鮮長白山脈 其著者也 我國古史所謂崑崙山.....喜馬拉雅山 亦稱崑崙山.

형형색색의 병풍석으로 둘러싸인 천지가 있다.

2) 곤륜산 정상에 못이 그 모형에 있어서 3면이 비등한데 북은 넓고 남은 좁아 인면상이라 했다. 그런데 백두산의 정상에 있는 천지의 모형도 3면이 비등하고 북은 넓고 남은 좁아 인면상이다.

3) 곤륜산은 하수의 원천으로써 못의 북쪽으로 큰 폭포가 흐르고 4방으로 四大河가 흐른다. 그런데 백두산도 하수의 원천으로써 백두산 정상의 천지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와 항상 북쪽으로 넘쳐 폭포를 이루고, 4방으로 두만·압록·송화·소하의 四大河가 흐를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작은 강하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수십 개가 흐른다.

4) 곤륜산이 三層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백두산도 三層으로 되어있고, 실제 답사하여 보거나 사진을 보아도 三層이다.

5) 곤륜산에 신선이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백두산에도 한웅·한검·자부선인 등 신선이 살았으므로 백두산 일대를 神市 또는 神州라 한다.

6) 곤륜산에서 불사약이 난다고 하였다. 그런데 『符都誌』에 의하면 백두산에서 三根靈草인 山蓼이 나고 이를 不死藥이라 하였다.

7) 곤륜산에서 아름다운 옥이 난다고 하였다. 그런데 『부도지』에 의하면 백두산에서 七色寶玉이 생산되었다고 하였다.

8) 곤륜산에 서왕모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백두산에도 서왕모에 대한 전설이 있다.²⁵⁾

9) 곤륜산은 지구(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세계지리학회에서 위성사진을 근거로 백두산을 지구의 중심이라 하였다.²⁶⁾

이상과 같이 곤륜산의 성립요건과 백두산의 특수성이 부합일치된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 백두산이 곤륜산이고, 곤륜산이 백두산임을 의미한다. 백두산 토착민들도 백두산을 곤륜산이라 하였다.²⁷⁾

25) 陳泰夏, 『아! 白頭山』, 教保文庫, 1986, p.251.

26) 세계일보, 1992, 2, 22(토), 2면, 說往說來, 白頭山.27)

27) 鄭在皓, 『白頭山說話研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92, p.518에 “곤륜산의 남쪽과 북쪽 가운데에 세 개의 커다란 줄기가 있어서 동쪽 지방에 굳게 뿌리내리고 있다. 장백산은 북쪽 주봉으로 세 개의 봉우리가 있으며, 동북쪽 바다에 까지 뻗어 있다”고 하였다. 곧 장백산은 백두산인데, 곤륜산의 주봉이라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釋迦方志를 보면 설산과 백두산은 같은 산인데 곤륜산이 설산 중에 있다 하여 곤륜산이 백두산의 일부를 말하고 있다. 여하간 두 기록에 의하면 백두산과 곤륜산은 같은 산인 것이다.

둘째, 곤륜산이 산의 조종이라면, 백두산이 곧 산의 조종임을 의미한다. 淸나라의 제4대 康熙帝도 지나의 泰山은 물론 한국·지나·만주의 모든 산이 백두산에서 뻗어나간 지맥임을 밝히었다.²⁸⁾ 곧 백두산이 모든 산의 조종이라는 것이다.

셋째, 지나문화와 유교가 곤륜산에서 기원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곧 우리나라의 백두산에서 기원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나의 문화와 사상은 우리민족문화의 영향을 받아 성장한 우리민족문화의 아류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지나의 학자들은 제 민족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민족의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민족의 문화와 사상을 말살하려 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을 우리 학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IV. 道敎의 發生과 우리 나라의 白頭山

1. 道敎의 發祥地인 三神山은 어떤 山인가

지나의 도교인들이 地上仙境이라 동경하던 三神山은 어디에 있는 어떤 산인가? 그 어의로 말하면 삼신산이란 삼신과 연관성을 지니고, 삼신을 상징하는 산을 의미하는가 하면, 세 개의 神山 곧 세 개의 仙山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삼신산이란 어떤 산인가? 사마천의 『史記』 封禪書를 보면 “齊의 威王과 燕의 昭王 때부터 사람들에게 바다에 들어가서 蓬萊·方丈·瀛洲를 찾게 하였으니, 이는 三神山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渤海 가운데에 있는데 사람이 간다하여도 멀지 아니하다……일찍이 거기에 갔던 사람도 있는데 여러 신선과 불사약이 있고, 물건과 금수가 모두 희(白)며, 황금과 백은으로 궁궐을 지었다”²⁹⁾ 하고, 또 진시황 28년에 “齊人 徐市 등이 글을 올려서 말하기를 바다 가운데 삼신산이 있으니, 그 이름은 봉래·방장·영주인데 선인이 살고 있다. 재계하여 童男童女와 더불어 이를 구하고자 청하니, 동남 동녀 수천인을 뽑고 서불을 보내어 바다에 들어가 선인을 찾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³⁰⁾ “漢武帝도 역시 그러하여 그가

29) 鄭在皓 外, 『白頭山說話研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92, p.3.

30) 司馬遷, 『史記』, 卷二十八, 封禪書 第六, pp.1369-1370(景仁文化社, 1977, pp.343-344): 自威宣 燕昭 使人入海 求蓬萊 方丈 瀛洲 此三神山者 其傳在渤海中 去人不遠……有至者 諸僊人及不死之藥皆在焉 其物禽獸盡白而黃金銀爲宮闕.

처음 임금에 되자 귀신에 대한 제사를 더욱 공손히 올리는 동시에 李少君·黃鍾(황추)·史寬·公孫卿 등 여러 방사들이 삼신산인 봉래산에 있는 安期生 선인과 잘 통한다 해서 漢武帝는 이들을 발해의 삼신산에 보내, 죽지 않는 약을 구하고 안기생으로부터 신선술을 배우고 또 봉래산의 신선을 데려오게 하였다”고 하였다.³¹⁾ 이를 보면 삼신산은 과연 지상선경이라 할만 하다. 그러면 삼신산은 어디에 있는 어떤 산인가? 우선 이상의 기록에 따라 삼신산의 성립요건을 인출한다.

첫째, 삼신산은 삼신과 연관성을 지닌다.

둘째, 삼신산은 봉래·방장·영주의 총칭이다.

셋째, 삼신산은 발해 곧 바다에 있다.

넷째, 삼신산은 신선이 사는 곳이다.

다섯째, 삼신산은 불사약이 나는 곳이다.

여섯째, 삼신산의 초목과 금수는 모두 희다.

일곱째, 삼신산에는 황금과 백은으로 궁궐을 지었다.

이상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면 그 산이 곧 삼신산이라 할 수 있고, 신선사상의 발원지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한 산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2. 三神山은 우리 나라의 白頭山이다

삼신산은 발해에 있다고 하였다. 발해는 고대 우리나라이다. 그러므로 삼신산은 우선 우리나라에 있다고 추정할 수 있고, 백두산에서 한웅천황³²⁾이 天一·地一·人一 三神一體의 天道에 의해 신선도를 베풀었으므로 백두산이 우선 삼신산이 아닌가 하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백두산에 대한 호칭의 유래부터 알아보기로 한다. 이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각각 다르다. 지나의 옛 지리책 『산해경』에 의하면 백두산의 최초 이름은 不咸山이다. 지나의 北魏 때에는 蓋馬大山, 북위로부터 南北朝까지는 徒太山, 唐나라 때에는 太白山, 金나라 이후부터는 長白山이라

30) 上揭書, 卷六, 秦始皇本紀 第六, p.247(景仁文化社, 刊, p.62): 齊人徐等上書言海中有三神山名曰蓬萊方丈瀛洲僊人居之請得齋戒與童男童女求之於是遣徐發童男女數千人入海求僊人.

31) 上揭書, 卷十二, 孝武帝本紀 第十二: 안호상, 『단군과 화랑의 역사와 철학』, 사림원, 1979, p.188에서 재인용.

32) 한웅천황이란 桓雄天皇을 지칭한다. 桓의 발음이 현재는 ‘환’이나 원래 ‘한’이다. 또한 현재 민족사학계에서도 桓을 ‘한’으로 읽는다. 이 점에 오해없기 바란다.

불렀다.³³⁾ 그밖에도 백두산에 대한 호칭을 안호상은 九月山·弓忽山·今彌達·單單大嶺·塗山·丹山·白山·白岳山·白牙岡·神山·三神山·三聖山·三危山·天山·風山·丸山 등 무려 54개나 들고 있다.³⁴⁾ 이상과 같이 백두산에 대한 호칭이 다양함을 이해하고 그 특수성이 삼신산과 일치하는 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삼신산은 삼신과 불가분의 연관성을 지닌다. 그런데 백두산도 삼신과 불가분의 연관성을 지닌다.

삼신이란 천일·지일·인일을 의미하는데, 신선도가 백두산에서 天一·地一·人一-三神-體의 천도에 의하여 베풀어졌다.³⁵⁾ 또한 삼신은 한인·한웅·한검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삼국유사』에 의하면 한웅천황이 아버지 한인의 뜻에 따라 풍백·우사·운사 등 신관과 3천의 무리들을 거느리고 백두산정의 신단수 밑에 내려와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신시를 베풀었고, 한웅의 아들 한검(단군왕검)이 백두산 단목하에서 조선국을 세웠다.³⁶⁾ 이래서 백두산은 삼신과 불가분의 연관성을 지닌다. 이 한 가지 사실만을 보더라도 백두산이 삼신산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삼신산은 봉래·방장·영주의 총칭이다. 그런데 백두산에 봉래·방장·영주의 삼신산이 있다.

『부도지』에 ‘不咸三域’이라는 말이 나온다. 불함은 백두산을 의미하며, ‘三域’은 그 註에 의하면 봉래·방장·영주이다.³⁷⁾ 즉 백두산 내에 삼신산이 있다는 것이다. 『태백일사』 신시본기에도 백두산을 논하는 대목에서 봉래는 쑥이 무성하게 자라는 목정밭 곧 천왕이 내려온 곳이며, 방장은 사방이 一丈인 闔 즉 蘇塗가 있는 곳이며, 영주는 못이 섬을 둘러싼 모양 즉 天池가 나오는 곳이며, 이들을 말하여 삼신산이라 한다고 하였다.³⁸⁾ 즉 백두산에 봉래·방장·영주의 삼신산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삼신산이란 봉래·방장·영주를 의미하고, 봉래는 금강산, 방장은 지리산, 영주는 한라산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인간의 신체에 上丹田·中丹田·下丹田이 있다. 그와 같이 땅에도 상단전·중단전·하단전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백

33) 鄭在皓 外, 『白頭山 說話 研究』,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92, p.159와 景仁文化社, 『中國古今地名大辭典』, 해당산명 및 해당국명 참조.

34) 안호상, 『단군과 화랑의 역사와 철학』, 사림원, 1979, pp. 229-231.

35) 안창범, 전계서, pp.103-112.

36) 『三國遺事』, 卷 第一, 紀異 第一, 古朝鮮(王儉朝鮮)篇.

37) 朴堤上 原著(金殷洙 譯), 『符都誌』, 가나出版社, 1986, p.55.

38) 김은수 역, 『한단고기』, 가나출판사, 1985, p.154.

두산은 상단전, 한반도와 만주대륙과 지나대륙은 중단전, 각 지방은 하단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금강산·지리산·한라산은 중단전에 있는 삼신산이라 할 수 있고, 각 지방에도 봉래·방장·영주라 칭하는 작은 삼신산이 있을 수 있다.³⁹⁾ 따라서 금강산·지리산·한라산도 이들 하나 하나는 仙山이지만 이를 총칭해서 말하면 삼신산인 것이다.

셋째, 삼신산은 바다에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바다는 우리나라 고조선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하였다.

넷째, 삼신산에 신선이 살았다고 했다. 그런데 백두산에도 신선이 살았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태백산(백두산)은 한웅천황이 풍백·우사·운사 등 仙人을 거느리고 내려온 곳이다. 『태백일사』 신시본기에도 “백두거악은 大荒中에 튼튼히 자리잡았으니 배달천국의 鑛山이요, 神人의 오르내림은 실로 이곳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였다.⁴⁰⁾ 즉 백두산에는 한웅·한검·자부선인·발귀리 등 선인이 살던 곳이다. 그러므로 백두산은 선인의 고장이다.

다섯째, 삼신산에서 不死藥이 난다고 했는데, 백두산에서 불사약이 생산되었다.

『符都誌』에 의하면 不咸山(白頭山)의 영주 垓輿山 磁朔方에서 인삼(산삼)이 나는데, 이는 四朔(2080년)을 경과하여야 꽃을 피는 三根靈草로서 이를 세상에서 不死藥이라 한다고 하였다.⁴¹⁾ 실제로 있어서도 백두산에는 인삼씨만 따먹고 사는 人蓼鳥가 있을 정도로⁴²⁾ 백두산은 인삼의 고장으로서 인삼을 백두산 三寶 중의 하나로 친다.⁴³⁾

여섯째, 삼신산의 초목과 금수는 희다고 했다. 그런데 백두산 북쪽 기슭에는 백양목이 많고, 흰사슴·흰돼지·흰매들이 지금에도 서식하고 있다.⁴⁴⁾ 『歷代小史』에

39) 우리나라 각 지방에 있는 삼신산을 예로들면, 경북 경주 안강 강교의 성산, 경북 경상의 삼승산, 충북 음성 원남면 하당리와 음성읍 신천리 경계에 있는 어리산(삼실산), 충북 청원 오창 농소에 있는 비룡산, 강원 영월 하동 와석 무릉마을 뒤에 있는 산, 강원 철원 서와수에 있는 삼성당산, 강원 평창 봉평 평촌 봉산 서쪽에 있는 산, 강원 홍천 서석 검산 웅달앞 냇가에 있는 산을 삼신산이라 한다. 이상 외에도 봉래 방장 영주산이 따로 따로 각 지방에 있다(『한국땅이름큰사전』, 한글학회, 1991). 중국에도 蓬萊山이 있으니, 湖北省 黃岡縣 서쪽 120리 陽邏鎮, 큰강가에 임해 있는 산을 蓬萊山이라 하고, 四川省 蓬溪縣 東半里에 있는 산도 蓬萊山이라 한다(謝壽昌 外 七人, 『中國古今地名大辭典』, 商務印書館, 中華民國, 二十年, 1192면 蓬萊山).

40) 김은수 역, 전계서(한단고기), p.155.

41) 朴堤上, 『符都誌』, 가나출판사, 1986, p.55.

42) 陳泰夏, 『아, 白頭山』, 教保文庫, 1986, p.235.

43) 상계서, p.235.

의해도 백두산(장백산)의 초목과 금수가 모두 희다고 하였다.⁴⁵⁾ 실제 백두산을 등반하여 보아도 백두산 북쪽 기슭의 나무들은 거의 백양목이고 소나무 중에 白松도 있다. 가을이 되어 산상에서 북쪽의 산미를 내려다보면 하얗게 보일 정도이다. 그래서 그곳을 흐르는 강물 이름을 二道白河·頭道白河 등 白河라 부른다.

일곱째, 삼신산에 황금과 백은으로 궁궐을 지었다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너무나 과장된 나머지 비합리적이고 실제 있을 수 없는 문제이므로 논외로 한다.

이상 외에 백두산이 삼신산임을 반영하는 특수성을 지적하면 백두산이 三層으로 되어 있다는 점, 三江一池라는 점, 천지의 좌우에는 金線·玉漿(옥장)·隱流 등 세 개의 샘이 있다는 점, 천지의 동북쪽에 麟巒(인만)·鳳巒(봉만)·碧螺(벽라) 등 세 개의 산이 있다는 점⁴⁶⁾ 등 거의가 三數로 된 점이 삼신산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백두산은 삼신산의 특수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도 삼신사상을 반영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① 삼신산이 백두산이고, 백두산이 삼신산임을 의미한다. 『태백일사』 신시본기에도 “옛날의 삼신산은 곧 태백산이다. 또한 지금의 백두산이다”라고 하였다.⁴⁷⁾

② 도교의 발상지가 삼신산이라면, 도교는 우리 나라의 백두산에서 발생됐음을 의미한다.

V. 要約과 結論

1. 要約

아직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나,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까지 신화적인 존재로 취급되고 있는 한웅천황에 의하여 지금부터 5896년(서기1999년 현재) 전 음력 10월 3일, 우리 나라의 백두산 神市에서 불교·유교·도교 三教一體의 神

44) 金得椶, 『韓國宗教史』, 白岩社, 1978, p.53.

45) 『歷代小史』, 卷六十一 遼志, “長白山在冷山東南十餘里 蓋白衣觀音所居 其山內禽獸皆白人不敢入 恐瀆其間”, 都瑛淳 編, 『神仙思想과 道教』, 범우사, 1994, p.69에서 재인용.

46) 鄭在皓 外, 『白頭山說話研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92, p.517.

47) 김은수 역, 전계서(한단고기), p.155.

仙道가 설해졌었다. 그에 대한 기념행사가 오늘날 10월 3일의 개천절 행사이다.⁴⁸⁾ 그런데 전통적 동양사상이라면, 흔히 석가의 불교와 공맹의 유교 그리고 노장의 도교를 지칭하고, 불교는 雪山, 유교는 崑崙山, 도교는 三神山과 불가분의 연관성을 지니거나, 아니면, 거기에 발생학적 기원을 둔다. 그러나 설산은 인도 북부의 히말라야 산맥 중의 어느 산으로 막연히 생각해왔고, 곤륜산은 중국대륙 어디에 있는 것으로 추정해왔으며, 삼신산은 海中의 어디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왔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금강산과 지리산 그리고 한라산이라 막연히 생각해왔을 뿐이다. 이들 산이 어디에 있는 어떤 산인지 분명히 지금까지 밝혀진 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관련서적을 검토하고 우선 설산의 특수요건 곧 그 성립요건을 인출하여 정리하고, 거기에 우리 나라 백두산의 특수요건을 대입한 결과, 설산과 백두산이 서로 부합일치되었다. 곧 설산은 백두산의 異稱으로서 바로 백두산을 지칭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대륙 북부의 히말라야 산맥에는 석가세존이 고행성도한 설산이 없었으며, 흔히 인도당국이 석가세존의 고행성도지라는 부다가야는 산악이 아니라 평지였고, 지리적 조건 역시 설산의 성립요건에 일체 부합되지 않았다. 곧 인도대륙에는 佛書에서 말하는 그러한 설산이 없었다.

다음으로 지나인들이 유교문화의 발상지며 산의 조종이라는 곤륜산의 성립요건을 인출하여 거기에 우리나라 백두산의 특수요건을 대입한 결과 곤륜산과 백두산이 서로 부합 일치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나대륙에는 곤륜산이 없었다. 그러므로 지나인들이 유교문화의 발상지라는 곤륜산 역시 우리나라의 백두산이었다.

세번째로 지나인들이 지상선경이라 동경하고 신선이 사는 곳이라 믿는 삼신산의 성립요건을 인출하여 거기에 우리나라 백두산의 특수요건을 대입하였다. 그 결과 삼신산과 백두산도 서로 부합 일치되었다. 곧 백두산의 이칭이 삼신산이었다. 흔히 우리나라의 금강산과 지리산 그리고 한라산을 삼신산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들 산의 총칭이 삼신산이며 하나 하나는 삼신산이 아니라 仙山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설산·곤륜산·삼신산은 모두 동일한 산으로서 한웅천황이 도·불·유 삼교일체의 신선도를 설파한 백두산을 지칭하고 있었다. 따라서 석가의 불교가 설산에서, 공맹의 유교가 곤륜산에서, 노장의 도교가 삼신산에서 기원된 것이

48) 안창범 지음, 개정3판『우리민족의 고유사상』,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 pp.37-45에서 음력 10월 3일의 개천절 행사는 한웅천황이 천도를 깨치고 신선도를 설파한 기념행사임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사실이라면, 이들 종교는 모두 우리나라의 백두산에서 기원되었다는 이론이 성립되었다. 곧 우리민족은 동양문화의 창조자이며, 우리나라의 백두산은 동양문화의 발상지라는 이론이 성립되었다.

2. 結 論

이상과 같이 설산·곤륜산·삼신산은 동일한 산으로서 우리나라 백두산의 異稱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신비 속에 가려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다시 말하면, 우리민족의 역사가 사실대로 서술되지 않고 왜곡되거나 은폐되고 신화로 취급되는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만약 우리나라 백두산의 역사를 사실대로 인정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첫째, 道·佛·儒 三教一體의 신선도가 한웅천황에 의해 지금부터 5896년 전 음력 10월 3일, 우리나라의 백두산에서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둘째, 백두산은 전통적 동양사상의 발상지로서 우리민족은 동양문화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아울러 우리민족은 세계인류가 원시의 미몽에서 깨기 전에 종교를 설파한 민족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조숙한 민족이며 훌륭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셋째, 한웅천황이 신선도를 설파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한웅천황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역사적 실재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넷째, 한웅천황은 성인이시며 부처님으로서 우리민족은 부처님과 성인을 낳은 민족이며, 아울러 부처님과 성인으로부터 교화를 받음으로써 우리나라는 상고시대부터 君子之國이었고 神仙之國이었으며 東方禮儀之國이었고 天竺國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의 백두산이 불교·유교·도교 등 전통적 동양사상의 발상지라는 사실을 인정할 경우, 이상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지나족·몽고족·만주족·일본족 등 이웃 민족의 자존심에 허락되지 않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설산과 곤륜산 그리고 삼신산이 백두산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우리민족의 역사마저 왜곡되거나 신화로 취급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설산·곤륜산·삼신산이 백두산과 전혀 관계없다고 할 경우, 그것은 우리나라의 백두산이 동양사상의 발상지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우리민족의 역사와 사상마저 부정하는 것이 된다.

첫째, 한웅천황에 의한 신선도 설파가 부정됨으로써 한웅천황은 신화속의 인물로 추락되고, 우리민족의 상고사 역시 부정된다.

둘째, 우리민족은 고유종교와 고유철학이 없는 하찮은 민족으로 추락된다. 곧 우리민족은 남의 철학에 의해서 생활하는 더부살이 민족이 된다.

셋째, 지나족은 유교와 도교를, 인도족은 불교를 창설한 민족같이 되고, 우리민족은 이들 민족의 사상을 받아들이기만 했던 미개민족같이 취급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백두산이 전통적 동양사상의 발상지라는 사실을 은폐할 경우, 이상과 같이 우리민족에게 불리하고, 이웃 민족들에게 유리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민족의 상대역사를 신화로 추락시키고, 백두산이 동양사상의 발상지라는 사실을 은폐하게 된 동기는 원래 외세인 이웃 민족들의 저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민족은 지금까지 이웃 민족들의 그러한 저의에 속아왔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을 깨닫고, 우리민족은 지금까지 무엇이든 이웃 민족들로부터 받아들이기만 했다는 열등의식을 버리고, 민족적 자긍심을 되찾아야 할 때에 이른 것이 아닌가 싶다. 본 연구는 하나의 문제제기라 생각하시고 뜻 있는 학자의 깊은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Origin of Eastern Ideas and Mt. Paekdu in Korea

Chang-buom Ahn

This study is revealed the fact that Hanwoong Chunhwang, who has been treated as a mythical being until now, established Shinsun Do and combined Buddhism, Confucianism, and Taoism into one religion in Shinsi of Mt. Paekdu in the 3rd of October(the lunar calender), 5985 years ago, even though it isn't well known in the academic world. Generally the eastern world has traditionally thought of Buddhism as created by Buddha, Confucianism by Confucius and Mencius, and Taoism by Lao-tzu and Chuang-tzu. Buddhism, Confucianism and Taoism are originated in or inseparably related with Mt. Sul, Mt. Gonryun and Mt. Samshin. However, Mt. Sul was vaguely supposed to be one of the Himalayan Mountains in northern India, Mt. Gonryun to be a mountain somewhere in China, and Mt. Samshin to be Mt. Kumkang, Mt. Chiri and Mt. Halla in Korea. We don't exactly know where these mountains are located.

In this study, first, I have examined, arranged the essential materials of Mt. Sul, and then substituted the essential ones of Mt. Paekdu for Mt. Sul.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Mt. Sul could be another name of Mt. Paekdu, and Mt. Sul and Mt. Paekdu be the same mountains. Besides, there was no mountain named Mt. Sul where Buddha practiced asceticism in the Himalaya Mountains of Northern India, and its geographical condition was also different.

Second, the Chinese summed up the essential materials of Mt. Gonryun, the cradle of Confucianism, and the gods of mountain, and then substituted the essential ones of Mt. Paekdu for Mt. Gonryun. Therefore, Mt. Paekdu and Mt. Gonryun are the same mountains, and there was no mountains named Mt. Gonryun in China.

Finally, I arranged the related materials of Mt. Samshin that the Chinese

have admired as a celebrated mountain on earth and believed as the immortal place of Taoists, and substituted the related materials of Paekdu mountain for Mt. Samshin. And the result is that Mt. Samshin coincides with Mt. Paekdu. Frequently some people have thought that Mt. Samshin is named Mt. Kumkang, Mt. Chiri and Mt. Halla in Korea, but the total names of these mountains are revealed to be Mt. Samshin, and each name is not Mt. Samshin, but Mt. Sun.

Consequently, Mt. Sul, Mt. Gonryun, and Mt. Samshin are the same mountain named Mt. Paekdu where Hanwoong Chunhwang preached Shinsun Do. If it is true, these religions must be originated from Mt. Paekdu in Korea. Therefore, our Korean people are creators of oriental culture, and Mt. Paekdu in Korea is the birthplace of oriental culture.